광주, 인체이식 의료기기 시장 선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국비 100억원 확보
전남대에 심혈관·외과·안과 의료기기 상용화시설 구축

광주시가 몸에 넣는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인 ‘바이오인터페이싱 인체이식형(몸에 넣는)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산업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본과제가 지정된 후 국비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등 의료기관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기술적 한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인터페이싱 기술과 생체흡수성 소재 기술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 특화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생체흡수성 소재가 접목된 바이오인터페이싱 기술은 인체조직과 의료기기 사이의 상호작용 기술로, 생체적합성 증진기술, 약물전달 기술, 생체영상 기술, 치료기술 등이 접목된 최신 융복합 기술이다. 여기에는 의료용 코팅 기술도 포함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시는 전남대학교에 2026년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해 노화질환 대응용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특화 전주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은 주관기관인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가 수행하며,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병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시험·평가·인증 지원, 의료기기 병원 코드 등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제품의 실증 및 인허가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치과, 정형외과 특화 실증 인프라구축 사업이었던 ‘치과생체흡수성 중소파트너 지원사업’ 기반을 고도화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전 분야 실증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치과·정형외과 분야 외에 심혈관·일반외과·안과 분야 제품 실증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제품개발 및 상용화 기술지원 체계와 국제인증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국내 첨단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국내 매출 증가 100억원, 글로벌 시장진출 성과 100만달러 달성, 직접고용 87명 유발 등 경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오동교 광주시 산업혁신성장과장은 “사업 선정을 통해 기존 치과, 정형외과 중심의 광주시 의료산업 실증기반이 심혈관, 일반외과, 안과 등 제품 실증으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명실상부 국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특화 국제실증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LiOH) 생산 공장 착공식이 13일 여수 율촌 제1산단 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상락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 최정우 (주)포스코홀딩스회장, 박희석 포스코리튬솔루션(주)대표 등이 참석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율촌 제1산단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첫삽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산업경쟁력 기대

13일 율촌 제1산단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5751억원 규모의 ‘포스코리튬솔루션 율촌산단 수산화리튬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박희석 포스코리튬솔루션(주) 대표 등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고객사,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산화리튬(LiOH)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소재로 니켈과 함께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다.

2025년 포스코리튬솔루션 율촌산단 수산화리튬공장 준공과 함께 생산체제를 완성하면 연간 2만5000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생산직 직원 131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화리튬 2만5000t은 전기차 63만 대에 공급 가능한 양이다.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안정적 공급을 통해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일괄 공급망 체제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으로 보여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포스코그룹은 리튬을 비롯한 이차전지사업에서 글로벌 자원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친환경 미래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의 이번 착공이 탄소중립 시대를 열고 미래 신성장 먹거리를 대표하는 필수산업인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가치사슬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면서 “전남도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상수도관 파열, 초동대처 부실”

시의회 간담회…도시철도건설본부 등 복구작업 늦춘게 원인

최근 서구 금호동에서 발생한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상수도관 파열 사고는 초동 조치 부실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중 상수관로 파손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고 원인과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변상가 여건을 고려해 복구작업을 늦추면서 수도관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답변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물이 토양을 뚫고 올라오는 현상을 발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했다”고 설명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도 관계자도 “지름 20mm의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어 누수량과 상가들이 저녁 영업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밤 10시 30분께 복구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오후 7시 10분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막대한 양의 물이 분수처럼 치솟았고 주변 상가에도 물이 들이닥쳤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상가·주택 등 33곳, 2억85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2029년까지 도시철도 공사를 계속할 텐데 부서 간 정밀한 협업과 특단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 파손·누수로 지하철 공사 시공사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2020년부터 총 26건으로, 이 중 10건이 올해 발생했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한목소리

정치·경제계 촉구 성명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목포 상공회의소 등 광주와 전남지역 5개 상공회의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역 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 상의는 성명에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어려움이 심화하는 광주와 전남지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반드시 단지가 조성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미래 모빌리티, 지능형 가전,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 지역 주력산업의 동반 성장 또한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15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양 시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져야 한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반도체 산업육성의 최적지다”라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방부활의 기대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산 한우·돼지고기 홍콩 공략

道, 판로 확대 총력…물류비·포장재·판촉 지원

전남도가 전남 축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전남산 축산물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홍콩시장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수출 품목은 돼지고기와 한우고기다.

전남도는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수출협의체로 구성된 도내 광역브랜드 및 한우·돼지고기 축산물 가공업체에 수출물류비, 포장재 구입비, 판촉 행사비, 마케팅비 등 소요 비용을 ‘전남산 축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6억원에 이어 올해 3억원을 지원한다.

㈜동명축산이 돼지고기를 2022년 1800마리(싯가 약 10억원) 154t을 수출했으며 올 들어서도 630마리 50t을 수출했다. 최근 홍콩거래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수출물량을 연간 200t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냉장 지육으로 돼지 전 부위를 수출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이밖에 한우고기 비선호 부위인 목심과 앞다리(냉동)도 연간 30t 규모 신규 계약을 해 수출이 확대되면 국내 재고량 감소와 한우 수급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홍콩 수출 도축장인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전남도 한우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무항생제 인증 한우고기 1++ 채끝 650kg(싯가 7000만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추진하는 홍콩 수출 가공장까지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수출물량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전남산 돼지고기와 한우고기가 홍콩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산 축산물이 싱가포르 등 동남아외 시장까지 진출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